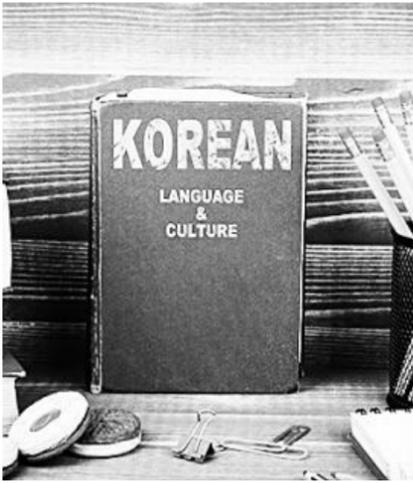


재외동포 10명 중 9명 “자녀에게도 한국어·문화 가르칠 것”



▲ 사진=shutterstock

성 함양지수 조사' 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난해 말 차세대 육성 성과 한민족 정체성 함양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 오세아니아 등에 사는 재외동포 986명을 대상으로 '차세대 재외동포 정책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비율은 93.9%로, 조사를 시작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은 전년 대비 27.9%포인트 오른 87%에 이르렀다.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는 항목에 동의한 비율도 전년 대비 4.6%포인트 오르며 역대 최고치인 93.6%(매우 그렇다 84.0%·그렇다 9.6%)를 기록했다.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이 80%를 넘어서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미주 한인들을 포함한 재외동포 90%는 자녀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가르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외동포 한민족 정체

지역별로는 남미(100.0%), 아시아·중동(95.6%), 중국(95.2%), 북미(93.6%) 등의 순이었으며, 대부분 국가에서 90%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민족의 역사·문화를 자녀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항목에 동의한 비율도 91.7%(매우 그렇다 68.5%·그렇다 23.2%)로 3년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결혼 상대자가 꼭 같은 한인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56.3%로 크게 낮아졌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 항목의 긍정적 답변 비율은 75.7%, 69.6%, 78.3%였다.

이밖에 '자신이 한민족이라 생각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91.7%(매우 그렇다 80.8%·그렇다 10.9%)에 이르렀다. 이는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90%를 넘긴 수치다.

법인설립과 절세를 도와드립니다

전 대기업 CFO
오랜실무경험

공인회계사
오승운



- Income Tax Return ■
- Corporation Set-up & Dissolution ■
- Tax Planning Service ■
- Tax Audit Representation ■
- Payroll Services ■
- Sales Tax Return ■
- 사업체 분석 ■
- Accounting System 상담 ■
- Member of C.S. ■

714.522.1120

6281 Beach Blvd. #101 Buena Park, CA 90621
(Beach + Commonwealth) / 유나이티드 은행 뒤편

Michael S. Oh CPA

다만 '한민족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할 의사가 있다'는 항목에 동의한 비율은 60.8%로 전년 대비 17.3%포인트 감소하며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60%대로 내려앉았다.

가주차량국, 운전면허 필기시험 한국어 서비스 중단 추진

미국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기시험에서 한국어 시험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가주차량국(DMV)은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현행 25개 언어에서 7개 언어로 축소해 시행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개 언어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르메니아어, 인도어, 파키스탄어(Punjabi), 베트남 등으로 한국어는 제외됐다.

이로 인해 영어에 취약한 한국인 등 7개 언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민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에 어려움

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주차량국의 이와 같은 움직임이 알려지자 LA한인회 등 한인단체들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가주 상·하원의원 등을 상대로 운전면허 필기시험 한국어 제외 방침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기로 했다.

제임스 안 LA한인회장은 "최근 아시안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주차량국의 조치는 또 다른 차별이 아닐 수 없다."면서 가주차량국의 운전면허 필기시험 한국어 제외 방침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어바인시, 시 승격 50주년 기념 사진 공모전 개최



▲ 사진=트위터(Irvine Simao)

어바인시가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분야는 문화와 커뮤니티, 역사, 야외, 애완동물, 17세 미만 등 5개 부문이다. 공모전에는 지역 주민, 비즈니스 관계자는 물론 방문자도 응모할 수 있다.

응모 작품은 반드시 어바인 내에서 촬영된 것이어야 하며 역사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 응모작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촬영된 작품이어야 하며 제출 기한은 오는 8월 31일 오후 5시 까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어바인 스펙트럼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250달러 상품권이 지급된다. 당선작은 어바인 시청에서 전시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cityofirvine.org/photocontest)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Implant \$1,700 \$1,200	FREE Consultation	Exam X-ray Cleaning \$35
Crown \$500	잇몸치료 \$600 \$400	틀니 \$1,500

KMC Dental Group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Dr. Seong Hoon Cho DDS
각종 보험 메디케어(PPO) 환영

Irvine Tel. (949) 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 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 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
---	---	---